

## 신소설의 담론윤리\*

송 기 섭\*\*

###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가족 회귀의 서사들 |
| II. 여자의 미덕과 서사소통 | V. 맺음말         |
| III. 의무의 인간      |                |

### I. 머리말

신소설의 내면을 지배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도덕률이다. 도덕률이란 특정한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사고 방식, 즉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의 상부구조를 드러내 준다. 도덕에 대한 견해나 사고 방식은 그것을 형성시킨 토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토대가 또다른 도덕적 기준이나 요구를 필요로 하는 데도 관습만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sup>1)</sup>도 있다. 신소설에는 이러한 관습으로서의 도덕이 여전히 남아 윤리적 개화의 덕목으로 자리한다. 신소설에서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윤리적 삶의 모습을 정신적 미덕의 발견이란 긍정의 층위에서 친밀한 정감으로 다가서려는 것은 분명 신소설을 읽어내는 새로운 독법이

\* 이 논문은 2002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이기웅·박종만 역), 까치, 1983, 48쪽.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목적 지향적 가치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신소설이 당현실의 인간 조건에서 받아들이고, 또한 공리적 생활을 위해 추구하고자 했던 내면적 가치를 텍스트 내에서 순진하게 받아들여려는 자세가 여기에는 수반되어야 한다.

흔히 신소설은 그것의 양식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수준에서조차 실패한 서사적 도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정적 인식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반(反)개화이다. 신소설의 내적 형식을 지배하는 유교적 도덕감정은 작중인물을 고소설의 상투화된 규각에 가두어버리며 근대적 자각의 기미를 박제화한다. 이러한 성격화의 한계로 인하여 신소설은 구조에 있어 고소설을 답습하는데 불과하게 되고 표명된 개화 사상조차 관념성에 머무르게 한다.<sup>2)</sup> 이야기의 응집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우연의 남발, 진지한 사고나 허구적 상상력을 제약하는 격정적 서사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구세계에 대한 몰입을 저해하는 상투적인 삽화들, 이러한 신소설의 구조적 결함들은 그 심연에 윤리적 계몽과 연계된 도덕주의가 내재한다. 신소설의 도덕적 지향이 얼마나 강렬하고도 집요한 것인지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신소설의 시대 반영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신소설이 풍부하고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은 윤리적 인간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조건이다. 인간을 둘러싼 제반 삶의 상황들 중에서 윤리적 실존에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의 엮개를 삼으며 시대의 디테일을 재현해 냈다는 것은 그러한 윤리적 조건이 시대인들의 감정과 의식을 사로잡을 문제적 현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도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강제된 역사를 가졌다는 점이다.<sup>3)</sup> 신소설이 가장 중심에서 풍요롭게 재현해 내고자 한 도덕적 인간의 삶은 그렇게 오래인 역사적 연원을 가지며, 그런 만큼 완고한 강제를 동반한다. 신소설의 내면을 지배하는 이러한 도덕의 역사성은 신소설의 서사 구조의 역사성과 병행한다. 도덕적 계승이 서사 구조의 동질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는 신소설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기대한 인식 지평과도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서사적 이해와 감정적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서사적

2) 황정현, 『신소설연구』, 집문당, 1997, 18쪽.

3) 니체, 『선악을 넘어서』(김훈 역), 청하, 1982, 109-110쪽.

도식성을 상징할 수 있다. 신소설에는 이러한 서사적 도식성이 있으며, 이는 고소설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서사적 이해력을 가능케 하는 서사적 도식성은 동일한 양식을 지배하는 역사 속에서 전개된다.<sup>4)</sup> 신소설이 고소설과 차별되는 양식적 고유성을 가지려면 이러한 도식성에서의 일탈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신소설의 서사적 도식성을 낳은 윤리적 덕목이지 고소설과의 비교를 통한 패러다임들의 변화가 아니다. 곧 신소설과 고소설의 대비를 통한 양식적 동일성의 소멸을 밝혀내는 일<sup>5)</sup>은 신소설의 양식으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관점일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유보하고 신소설이 지닌 서사 패턴이나 재현된 디테일을 윤리적 비평의 지평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윤리적 검열과 관련하여, 신소설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어긋나는 소설이란 조동일의 관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는 신소설의 주제는 주로 표면적 주제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 왔는데 표면적 주제만 주제라 할 수 없으며,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면적 주제를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통찰하고 있다. 신소설 작가의 표면적 의식은 새로운 소설을 원했지만 이면적 의식은 기존 소설에서 공인되고 있던 관념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sup>6)</sup>는 것이다. 신소설의 이면적 주제는 작중인물의 윤리적 거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신소설은 기존 소설에 비해 경험적 구체성을 더욱 확대하기는 했지만 도덕적 당위성을 표상하는 선인(善人)이 도덕적 비행을 저지른 악인을 물리치며 이상적인 결말에 이르는 방향으로 서사된다. 결국 도식적인 서사적 이원 대립을 이끄는 선인은 개화 계몽이란 표면적 주제가 아닌 윤리적 계몽을 이끄는 이면적 주제를 부각시킨다.

4) 폴 리콕르, 『시간과 이야기』2(김한식·이경래 역), 문학과지성사, 2000, 48쪽.  
 5) 신소설이 구문학을 떨쳐버림으로써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학 양식에 의지해서 그 개량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음을 최원식은 밝히고 있다.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173쪽) 구문학에 의지한 데서 서사적 도식성이 비롯되었다면, 그것을 개량하고자 하는 데서 서사적 일탈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것이 전통 속에 침진된 패러다임들을 어느 정도 변이시켰는지는 충분히 탐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신소설을 고소설과 양식적으로 차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6)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83, 78쪽.

이면적 주제를 투사하는 작중인물들을 우리는 유교적 인간<sup>7)</sup>이라 부를 수 있다. 유교적 인간은 누적된 관습의 표피에 감싸여 있는 존재이다. 주지하듯 유교는 중세의 삶을 가장 지속적이고도 견고하게 지배한 예교(禮敎)로 민족의 정신문화적 유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유교적 인간이 인교의 내면적 수양을 통해 도달한 도덕적 인격과 감성은 신소설이 지향하는 긍정적 서사 분위기를 지배한다. 신소설이 구현하는 유교적 인간은 허구세계의 고정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신소설의 양식적 특성을 윤곽짓는다. 곧 유교적 인간은 신소설에 가장 집중적으로 구축된 작중인물로 신소설의 양식적 특성을 규정하는 표상적 존재가 된다. 이야기의 동일성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열망<sup>8)</sup>은 이러한 긍정적 인간형을 통해 충족되면서 신소설을 한 특정한 시대의 고유한 문학 양식으로 전형한다.

유교적 인격이 소설의 시학적 기초를 이루는 서사구조나 세부묘사와 어떻게 결합되면서 작품으로서의 완결성과 문학성을 구현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윤리적 탐색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의 전개나 그것의 표현에 있어서의 미숙함이 부단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소설은 독자를 사로잡는 서사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독자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힘은 신소설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고유한 속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소설의 양식적 속성을 윤리와 서사 담론의 결합이란 측면에서 밝혀보려 한다. 담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 소통의 영역으로 규정<sup>9)</sup>될 수 있을 것인데, 신소설은 서사담론을 통하여 당대 지배적인 윤리적 미덕을 전달하고자 한다.

---

7) 유교적 인간은 유교 경전을 학습하고 수기(修己)한 유교인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유교적 습성들을 체득한 생활 속의 유교인을 지칭한다. 뚜 웨이밍은 동양인의 의식에 자연스럽게 배양된 유교 정신에 의한 삶을 두고 마음의 유교적 습성들이라 불렀는데,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교적 인간이라 지목할 수 있다.

8) 루 샤오핑,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72쪽.

9) 사라 밀즈, 『담론』(김부용 역), 인간사랑, 2001.

## II. 여자의 미덕과 서사소통

윤리적 소통과 관련하여 신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점은 여자의 미덕에 관한 것이다. 신소설은 일차적으로 여자의 미덕을 유포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시대인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획된다. 유교적 효열(孝烈)에 속할 여자의 미덕은 서사의 골간을 이루는 이야기의 내용과 흐름을 통어하고 삽화들의 구체성을 규정한다. 신소설의 서사 구조는 이렇게 윤리적 덕목과 관련된 여자의 행실을 드러내면서 고유한 패턴을 형성한다. 이렇게 일정한 서사적 틀을 만들어 가는 신소설에서 우리가 마침내 실감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 구성의 상투성에 대한 거부감이기보다 그토록 반복하면서 열정적으로 내보이고자 했던 이야기의 내부적 진실이다. 인간의 삶은 이야기될 필요가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한다.<sup>10)</sup> 신소설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될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또한 그럴만한 가치를 담게 된다. 그것은 신소설이 진정 소통하기를 기대한 이야기의 진실에 해당한다.

여자가 미덕을 발현하기 위해 간직해야 할 우선하는 조건은 순결한 몸이다. <혈의 누>의 옥련, <치악산>의 이씨부인, <빈상설>의 옥희, <추월색>의 정임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진 여성성은 순결한 몸에서 비롯된다. 여성 주인공을 고귀한 존재로 인격화하고 퇴락한 세상을 비추는 이상적 성품의 소유자로 추켜세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순결이 담보되어야 한다. 신소설에 그려진 여성들은 이 순결을 경계로 하여 선악으로 나뉘어진다. 인물의 이원 구도에서 순결의 상실은 악이 된다. 악의 영역으로 추락한 존재는 윤리적 회개와 구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윤리적 계도를 표방하는 신소설의 주인공이 결코 될 수 없다. 몸은 마음의 통으로, 몸을 먼저 법도와 규범 가운데 둠으로써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도록 해야 함<sup>11)</sup>은 유가적 이상 인격을 체현한 인물이 구비해야 할 삶의 선행(先行)적 조건이다. 신소설의 여성들은 이러한 유가적 몸을 체득하여 간직함으로써 여성에게 부여된 의리를 실현할 기반을 갖추게 된다.

순결한 몸은 서사적 긴장과 흥미의 토대를 제공한다. 타락한 외부 세계는 끊

10)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 김한식·이경래 역, 문학과지성사, 1999, 167쪽.

11) 錢穆, 『주자학의 세계』(이완재·박도근 역), 이문, 1997, 111쪽.

임없이 이 신성한 몸을 훼손하고자 음모하고 공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설의 서사 구조는 탄탄한 응집력을 가지면서 독자를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시킨다. 세상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정작 소설의 구성적 밀도는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혈의 누>를 이끌어 가는 내재적 힘은 옥련의 순결한 몸이다. 청일전쟁에서부터 비롯된 역사 단위의 거대한 파장에서도 옥련은 순결을 지켜가며, 후속편에 해당하는 <모란봉>은 순전히 외부의 유혹과 폭력<sup>12)</sup>으로부터 정결한 몸을 지켜가는 옥련의 윤리적 실존을 그리는데 할애된다. 개화라는 표면적 주제가 현저히 약화된 <추월색>에 이르면, 이러한 서사적 비중은 더욱 긴요해진다.

예절이니 염치니 다 불구하고 음흉난잡한 말을 함부로 뉘던지며 여학생의 가늘고 약한 허리를 덩씩 안고 나무수풀 깊고 깊은 곳, 육모정 속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들어가니, 이때 형세가 술개 병아리 찬 모양이라. ... 여학생이 죽기를 한하고 방색하는 양에 화증이 왈칵 나며 화증 끝에 각심이 생겨서 왼손으로는 여학생의 젖가슴을 잔뜩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양복허리에서 단도를 빼어 들더니<sup>13)</sup>

<추월색>이 고도의 서사적 긴장감을 자아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에 여성의 몸이 있다. 젊은 여학생인 그녀는 형용키 어려운 어여쁜 용모를 지닌 탁락(卓犖)한 가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토록 영롱하고 고결한 그녀가 야비한 남성의 폭력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장면에서 이 작품은 시작된다. 그녀는 이 소설의 여주인공 이정임이며, 그녀의 위기란 다름 아닌 순결한 몸의 훼손위기이다. 그녀는 목숨을 대가로 하는 절박한 폭력 상황에서도 몸을 지키며, 그로 인하여 그녀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서사의 전면을 주도해 나간다. 여성 영웅은 이렇게 절명 위기의 순간에 예기(禮器)로서의 몸을 지킴으로써 탄생한다.

몸에 대한 이러한 결벽된 의식은 신소설에서 광범위하게 산포되어 있는 내

12) <혈의 누>에서 옥련은 구완서와 십년 이후의 성혼을 기약하고 귀국한다. <모란봉>은 귀국 후 옥련이 겪는 시련을 서사한다. 옥련의 고난은 그녀가 몸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옥련의 몸을 점유하고자 하는 서일순과 그녀의 정혼(定婚)을 부정하는 구완서의 부친 구연식은 이러한 외적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다. 옥련은 이 폭력적 대상과 맞서 몸의 순결을 보존하고 유교적 여성성을 획득한다.

13) 최찬식, 『추월색』, 전원, 1983, 153-154쪽.

용이어서, 비단 선민적인 여성 주인공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목단화>의 보조적 작중인물인 금순은 비복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지는 미천하나 절개야 귀천이 있습니까”<sup>14)</sup>라고 반문하며 죽음의 위기에도 순결을 지킨다. 『공진회』에 수록된 <기생>의 향운개 역시 기방의 친한 신분임에도 온갖 유흥과 억압을 교묘히 피하면서 몸의 순수성을 고수한다. 개화라는 시대 전환기가 몰고온 난세의 풍파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지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으나 여성에게 강제된 생존을 위한 표상적 의미는 변한 것이 없었다. 순결한 몸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순종에 가까운 고수는 그에 따르는 고유한 사랑과 결혼의 관념을 배태한다. 실제 순결한 몸은 순결한 혼인에 이르러 남성 안에서 생명의 존재적 지위를 보장받는 여성의 담보물이 된다.

미혼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신소설은 연애소설에 해당한다. 기혼의 작중인물들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남녀의 이합(離合)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애소설의 서사 구조를 원형적인 틀로 하여 구축된다. 신소설에서 남녀의 사랑은 관능적 그것과의 관계를 거부하며 윤리적 열망을 흡수할 계몽의 구도에서 실행된다. 결혼할 대상을 지향하는 여성의 의식은 믿기지 않을 만큼 순진하다.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아니면 우연한 어떤 계기에 결혼할 상대 남자를 지정받으며,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순결한 몸을 지켜 이 약정된 남자에게 자신을 가져간다. <혈의 누>에서 이러한 패턴이 모색되고 <추월색>에 이르러 더욱 흥미를 띠면서 유형화된다. 번안소설 <설중매>는 이러한 풍속을 ‘당연한 법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서사 유형이 외래의 소설을 수용하면서 공고히 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유럽 중세의 사랑이 일정한 기법의 틀 속에서 윤리적 개념<sup>15)</sup>들을 받아들이고 있듯이, 신소설에 구현된 사랑 이야기의 고유한 틀에는 당대의 지배적인 윤리가 담긴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맹목에 불과할 한 남자에 대한 집착은 유교적 정절이 낳은 미만한 시류(時流)를 반영한다.

14) 이인직, <목단화>, 『한국신소설선집』3, 서울대출판부, 2003, 74쪽.

15) 호이징가, 『중세의 가을』(최홍숙 역), 문학과지성사, 1988, 132쪽.

옥련이가 가장 높은 절개나 있는 듯이 방탕한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에 혼인 정한 곳이 있는데 십년 간이나 서로 언약을 지키고 있을 터이라 하는 고로, 누가 옥련이를 칭찬 아니 하는 사람이 없던 터이라<sup>16)</sup>

<모란봉>이 <혈의 누>의 후속 편임에도 개화 계몽의 의도는 훨씬 후퇴하고 옥련의 인간적 미덕을 드러내는데 기울어지고 있음은 신소설의 주요한 서사담론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잘 말해준다. <모란봉>은 옥련의 혼사 장애를 분망하게 그리면서 통속화된다.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옥련의 미덕은 고양되는데, 그러한 인물 형상의 이면에 유교적 도덕 감정이 잠류한다. 그리하여 신소설의 긍정적 여성들은 사적 감성 욕망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유교적 제도에 의해 규격화된 여성적 삶 속에 갇혀버린다. 유교적 도덕 이성은 내재적 자각을 중시하며 감성적 욕망을 억제한다.<sup>17)</sup> 옥련이나 정임, 혹은 <설중매>의 매선 등이 이러한 유교적 도덕 준칙에 의해 성격화되어 있음은 이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풍속이 난폭하고 사나워질수록 이들의 선행은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는데, 신소설은 이들의 도덕 경험을 부각시키면서 서사적 도식성을 재생산한다.

기혼 여성의 고난을 서사하는 <치악산>이나 <목단화>, 혹은 <빈상설>에도 이러한 서사적 유형은 내재한다. 개화와 완고의 대립은 이 작품들의 표면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서사적 구조는 실제 수난받는 여성의 정절을 고양시키는 부수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작품들은 고난 속에서도 정절을 지켜내고 남편과 결합하는 관행적 패턴으로 구현된다. 최소한 정숙한 척하는 고도의 형식주의가 이러한 여성들의 행동을 구속한다. 이러한 규율화된 도덕적 삶은 남녀간의 연애 감정과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랑에 하나의 양식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그 의례적 표현과 영웅적 표현을 더욱 높여, 다시 그리던 그 아름다운 삶에의 열망에 도달할 최고의 구현<sup>18)</sup> 방식이 된다. 신소설의 남녀간의 사랑은 그렇게 도식화된다. 이러한 서사 도식이 여성의

16) 이인직, <모란봉>, 『한국신소설선집』2, 서울대출판부, 2003, 187-188쪽.

17) 蔡方鹿, 『유교-전통과 현대화』(김봉건 역), 서광사, 1999, 253쪽.

18) 호이징가, 앞의 책, 132쪽.



유교적 미덕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출현한다. 현재의 시각으로는 어처구니없게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신소설의 서사 공간을 이루는 긴요한 자질들이다.

신소설은 그렇게 개화기 여성들의 사랑에 대한 규범과 관습들의 체계를 서사의 주요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절대적인 것은 이념에 의해 표상되지 않고 느껴지는 것<sup>19)</sup>이다. 신소설은 여성의 절대화된 삶을 감정적으로 소통되도록 구소설의 전통<sup>20)</sup>속에 침전된 서사 패턴을 원용하고 변형하면서 여성들의 사랑 이야기를 주요 화소로 삼는다. 이러한 이야기의 소통을 통해서 생성되는 감정이란 본질적으로 도덕적 의식의 소산으로 시대 정신으로 보편화된 유교에 연원을 두게 된다. 신소설의 서사적 도식은 자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속박된 도덕률에 기인하며, 이러한 담론 질서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공리적 도덕의 계도적 기제로 작용한다.

<자유종>은 신소설이 표방한 여성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이 작품은 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결여한 채 애국 계몽기라는 짧은 기간 내에서 유효하였던 일종의 특이한 문화 양식이다. 무성격적인 작중인물들은 행위의 입체성이 없으며 갈등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채 작가의 대변인 역할<sup>21)</sup>을 수행한다. 역설적으로, 이렇듯 소설의 형상적 구체성의 결여는 작품이 의도한 계몽의 요목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대는 적악한 일이 없고 이생에도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에 우애하며 투기를 아니하며 무당과 소경을 멀리하여 음사기도를 아니하며 전곡을 인색히 아니하여 어려운 사람을 잘 구제하고 학교에나 사회에나 공익상으로 보조를 많이 하였으니 너는 가위 선녀라 할지니, 그 행복을 누리라면 너의 일생뿐 아니라 천만년이라도 자손은 끊이지 아니하고 부귀 공명과 충신 효자를 많이 접지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미루어 본즉 내 자손이 천만년 부귀를 누

19) 장 프랑소와 료타르, 『칸트의 숭고미에 대하여』(김광명 역), 현대미학사, 2000, 97쪽.

20) 부모가 맺어준 남녀가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서사 패턴은 「이대봉전」을 비롯한 고전소설에 기초한다. 이러한 남녀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는 <설중매>와 <추월색>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근대성이 확보되는 『무정』조차 작중인물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로 남게 된다(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235쪽 참조).

21) 황정현, 앞의 책, 72쪽.

릴 지경이만 대한제국도 천만년을 안녕하심을 짐작할 일<sup>22)</sup>

이로써, 여성의 미덕과 여성의 의무가 굴절 없이 표명된다. 이는 조선 규방 여성에게 훈시되었던 삼종(三從)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계몽 의식을 정론화하는 장치로서 토론 형식을 빌어 사회적 폐습을 일소하고 변화된 시대를 예비하고자 한 <자유종>에서조차 여성의 미덕에 있어서는 누대로 이어져온 과거의 습속을 그대로 승계한다. 도덕의 표준을 기초로 하여 여성의 행위 규범을 강제하는 예의의 규칙들은 유구한 역사만큼 고루하고 경직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시대 전환을 예비하는 개화기 여성의 삶을 여전히 관장한다. 그것이 통용되었던 미숙한 시대의 순진성을 기반으로 하여 신소설의 서사구조는 짜여진다. 여성의 미덕을 반복하여 드러내면서 신소설의 서사적 유형이 정초되는데, 이는 고전소설의 서사 전통과 깊은 유대 속에 이루어진다. 여성의 미덕을 숭고하게 선양하는 이 지배적인 형식은 신소설을 특징짓는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양식적 전형으로 떠오른다.

### Ⅲ. 의무의 인간

절대적 가치와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는 전통 사회에서 도덕은 자명한 사실이 된다. 신소설에는 이러한 도덕을 체현한 도덕적 주체가 머무른다. 그들에게는 이미 천부적으로 주어진 도덕 준칙이 있으며 집단적 함의에 의해 불어넣어진 도덕심이 내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방으로 도덕 실천을 수행할 따름이며, 이에 부수될 도덕적 갈등은 거의 내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천리(天理)로서 부과된 고귀한 도덕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실행에 옮기는 의무의 인간들이다. 그들의 의무는 단단히 결박되어서 결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들의 주위에는 항상 그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질정하는 또다른 도덕적 무리들이 존재한다. 도덕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며 그에 따른 행위란 단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sup>23)</sup>하다는 도덕원리의 한 측면을 그들은 상정하지 못

22) 이해조, 『자유종』, 전원, 1983, 37쪽.

한다.

도덕적 당위성이 의무의 인간을 잉태한다. 신소설은 귀족적 영웅소설에서 도덕적 당위성을 물려받았다. 이에 따르면, 도덕적 기준에 의해 인간은 선악으로 구분된다. 선악은 사회적 행위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미리 설정된 규범에 따라 결정되기에 사회적 행위의 복잡성 같은 것은 고려되지 않고 선인은 언제나 완벽한 선인이고 악인은 언제나 고질적 악인이다. 신소설에서 선악의 기준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4)</sup> 의무의 인간은 선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도덕적 회의도 허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근대적 내면을 갖춘 도덕적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고집하는 도덕적 당위성은 유교 윤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삼강(三綱)이다.

<혈의 누>를 면밀히 보면, 이러한 당위적 인물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소설의 서두는 이러한 의무 이행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청일전쟁이 한 가족을 해체하는 서사적 위기로 설정된다. 그렇게 위기는 의무의 방기에서 조장된 국면이 아닌 역사적 재난에서 초래된다. <혈의 누>는 전쟁 고아가 된 옥련의 고난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귀국하는 장면에서 종결된다. 옥련은 위기 국면에 이를 때마다 구원자를 만나지만, 실제 그녀의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어 준 힘은 외부의 조력에 의하기보다 내부의 정신에서 나온다.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자살 이외는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도 “내 꿈에 (부모가) 현몽하니 내가 죽으면 부모에게 불효”<sup>25)</sup>라면서 생명의 의지를 소생시킨다. 그것이 관념의 효(孝)라 할지라고 그녀를 구원해 준 궁극의 조력자는 일본인 장교도 구원서도 아닌 그녀의 효심에 바탕한 그녀 자신이다.

구원서의 경우, 의무의 범주는 더욱 확장된다. 그에게 의무는 그가 관계하는 타자나 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적 안일이나 입신은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주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에게는 국가나 민족에 바쳐진 집단성이 강력하게 자리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집단을 향하는 데서 삶의 당위를 찾고자

23) 니체, 앞의 책, 208쪽.

24) 조동일, 앞의 책, 102쪽.

25) 이인직, <혈의 누>, 『한국신소설선집』1, 서울대출판부, 2003, 37쪽.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여도 나라를 위하여 하고 사업을 하여도 나라를 위하여 하고 살아도 나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옳은 일이라. 여보게 옥련, 자네 마음 어떠한가. 어서 시집이나 가서 세간살이나 재미있게 하면 그것이 소원인가. 자네 소원이 만일 그러할진대 우리 기왕 언약이 아무리 지중하더라도 나는 그 언약보다 더 소중한 국가 위하는 목적이 있으니 자네는 바빠 귀국하여 어진 남편을 구하여 하루바빠 시집가서 자네 부모의 소원대로 하게.<sup>26)</sup>

자신의 개체적 욕망을 저지하고 명분적 행위를 선택하는데서 구완서의 존재의의는 부여된다. 구완서는 윤리적 주체로서 윤리적 개화를 이끄는 존재로 성격화된다. 윤리적 주체는 타자가 부여하는 윤리적 요청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고통받는 상처 속에서도 박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짊어진다.<sup>27)</sup> 옥련을 구원하면서 구완서는 윤리적 주체로서 타자를 희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로 전형화된다. 그가 자기 동일성을 확인하는 길은 자기 희생의 관계에 자신을 밀어 넣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타자 윤리는 그가 거처하는 모든 영역을 규정한다. 가장 엄격한 절대주의보다 더 주체에게 엄밀한 요구를 제시하는 타자 윤리<sup>28)</sup>가 그의 내면을 미만하게 채우고 있다. 윤리적인 삶은 자신의 판단 영역을 벗어난 존재의 조건이 된다. 그러한 의무로서의 삶은 '나라'를 위해 소아를 버리도록 그를 질정한다. 이러한 무한 책임에 당면하여 그는 이기적 개인을 버리고 명분의 삶을 선택한다. 옥련과 구완서의 결혼은 이러한 당위론적 선택에 밀려 십년 뒤로 유보된다. 옥련 또한 이러한 명분을 위해 여자로서의 행복을 유예한다. 이러한 청춘 남녀의 결정은 의연해 보이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적 공유를 통해 <혈의 누>는 인간의 삶에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표명한다.

한 개인의 삶이 선충(先忠)에 밀리고, 선효(先孝)에 밀리며, 그리고 열(烈)의

26) 이인직, <혈의 누>(하), 앞의 책, 70-1쪽.

27) 김연숙,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18쪽.

28) 콜린 데이비스, 『타자를 향한 욕망』(김성호 역), 다산글방, 2001, 108쪽.

규범에 종속되는 윤리형 인간이 신소설에는 풍부하게 묘사된다. 윤리의 골간이 되는 것이 삼강(三綱)인데, 신소설의 윤리 범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회의 도덕 사상은 전체 사회 집단의 보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sup>29)</sup> 우리의 중세는 그 사회의 존속을 위해 유교적 절대가치를 부여한다. 삼강이란 윤리 제도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현실의 인간 조건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시대 전환기인 개화기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윤리적 조건을 반영한 신소설은 전대의 가치를 충실하게 재연하면서 윤리적 개화의 내역으로 유교적 덕목을 내세운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무엇이 그 중 무거우냐 하면, 첫째는 부모요 그 다음은 동기인 고로, 인군 섬겨 충신이 되라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근본을 삼고, 인민을 건져 사업을 이루라면 동기에 우애함으로 비롯하나니<sup>30)</sup>

세상에 행복될 바 있을진대 몸을 버리더라도 사회를 위하여 힘을 다할지니 구구히 목전의 간고함을 두려하면 자손을 위하여 행복의 사회를 성립지 못하리니 나도 대답은 못하나 사회에 나간 후에는 아무리 불행한 일을 만날지라도 뜻을 변치 아니할지며 부모도 응당 허락하시리로다.<sup>31)</sup>

<빈상설>의 이승학이나 <설중매>의 이태순은 모두 선인(善人)에 속한다. 이승학은 여주인공 이씨부인의 아우이며, 이태순은 여주인공 매선의 정혼자(定婚者)이다. 그들은 모두 개화에 속하는 인물군이나 풍속의 차원에서는 전통을 묵수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혈의 누>의 구연학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세 인물들은 또한 선충(先忠)을 그들이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등하게 위치한다. 선충과 선행은 이들이 개체적 욕망을 억제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고한 선행(善行)이 된다. 유교를 내재화한 과거는 그들에게 집단무의식적으로 투사되어 있으며 여전히 지속되어야 할 현재성을 띠게 된다. 옛 습속에 뿌리내린 생활 감정은 이들의 내부를 지배하며, 이들은 세습된 감정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않는다. 곧 그들의 개화 의식은 그들의 이

29) D.D. 라파엘, 『현대도덕철학』(김영철·김우영 역), 서광사, 1987, 40쪽.

30) 이해조, 『빈상설』, 전원, 1983, 86쪽.

31) 구연학, 『설중매』, 회동서관, 1908, 19쪽.

러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긍정적 작중인물의 내면을 지배하는 윤리 감정은 신소설의 서사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윤리도덕에는 정신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감정적 즐거움도 들어 있어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분리시킬 수 없다.<sup>32)</sup> 신소설은 타자를 지향하는 인간의 윤리적 삶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또한 격정적인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도덕적 공통감을 형성하면서 신소설의 서사적 도식성은 주형된다. 이로써 우리는 신소설의 서사구조가 유교적 윤리를 시대의 보편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형성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신소설은 기본적으로 도덕판단과 미적판단은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sup>33)</sup>으로 인식되는 바탕 위에서 고유한 서사 양식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긍정적 인물군뿐만 아니라 도덕적 당위성에 지배되어 개심(改心)하는 부정적 인물군도 이러한 서사의 도식적 틀에 모두 수렴된다. 신소설의 악인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실제적 유용성에 기인한다는 공리적 도덕 관념에 유혹당한다. 반인륜적 행위는 도덕적 갱생의 원천이 되고, 악인은 도덕적 당위에 길들여진 선인의 인도로 정신적 갱생에 이른다.

서사적 담론의 경계를 벗어나 있는 <자유종>과 <금수회의록>에서는 도덕적 당위의 실행을 논설조로 설교한다. <금수회의록>에 의하면 사회의 비리 역시 인간의 몰도덕성에 기인한다.<sup>34)</sup> 곧 도덕 개조는 타락한 사회상을 바로잡는 현안으로 다가온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것이 효(孝)이다. 여자의 정절과 더불어 효의 재건은 세상의 부패한 인문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동물적 생존이 아닌 인간적 존재가 되기 위하여 건설하고자 한 도덕 원리는 유교의 천리에 근거한 의리와 염치로, 도덕 감정의 층위에서만 보자면 <금수회의록>은 과거로의 퇴행으로 보여진다. <자유종>의 도덕 관념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자유종>의 효(孝)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행위의 기초적 의무가 확대되어 '국민'<sup>35)</sup>의 의무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삼강 질서의 선충

32) 劉偉林, 『중국문예심리학사』(심규호 역), 동문선, 1999, 69쪽.

33) D.D. 라파엘, 앞의 책, 47쪽.

34) 윤계근, 『안국선의 신소설에 나타난 모순의 공존』, 『신소설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103쪽.

35) 국민의 자각은 신소설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개화 의식의 한 영역에 속한다. 최

(先忠)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의무의 확대는 전형적인 유교적 인간 조건을 떠올리게 한다. 신소설의 작중인물들도 이렇게 인간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는 유교에 기반한 전통에서 내원(來源)한 것으로 근대적 개인의 감성과 자아는 공존할 여지를 부여받지 못한다.

#### IV. 가족 회귀의 서사들

가족은 작품의 결말이 도식적으로 귀결되는 신소설의 서사 패턴에 가장 집약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고소설에 내재하는 이상적 화해로의 종결은 대부분의 신소설에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한 완결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가족이 매개된다. 역사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보존하는 사적 틀은 서사 의미와 가치를 또한 동일하게 보존한다. 유교적 가족 정서 혹은 가족 이념은 이러한 서사들의 반복적 형식을 부여하고 인식소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가족은 언제나 유교적 생활과 윤리에서 중심<sup>36)</sup>에 있었으며, 유교를 정신적 축으로 받아들이면서 혈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해 왔다. 이렇게 유교적 생활감정과 사유 체계를 받아들이며 견고히 유지되어 온 가족주의는 신소설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유교적 가족주의 및 그 규범과 가치체계가 우리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때 그것이 소설과 깊은 관련을 지닐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sup>37)</sup> 신소설은 한편으로 유교적 가족의 악폐를 고발하고 개선하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진정 함의하는 미덕을 추구하면서 고유한 서사적 틀을 구축한다.

---

초의 신소설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 애국 계몽기에 『국민수지』나 『유년필독』 등을 통해서 국민이란 관념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다. <혈의누>에는 한 개인이 왕조의 백성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란 의식의 일단을 내보이는데, 이것이 『은세계』에 오면 국민의 자각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국민의 발견은 이해조의 <자유종>이나 <빈상설>에 국민의 의무에 대한 각성으로 진전됨을 살펴볼 수 있다.

36) 줄리아 칭, 『유교와 기독교』(임찬순·최효선 역), 서광사, 1993, 131쪽.

37)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민음사, 1993, 18쪽.

인간의 도덕적 처신과 관련하여 신소설에서 문제삼은 것은 풍습의 도덕인데, 그것은 주로 가족이란 경계 내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처신에 관한 것이다. 개화 운동이 주로 풍속 개량에 국한된 것은 근대로의 시각을 열어갈 토대의 열악함에 그 근본 원인이 있지만, 실제 인간 삶을 구체적으로 제약하고 조정하는 풍속을 도외시하고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까닭을 배제할 수 없다. 오랜 세월동안 내려온 인습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축적되어 있었으며, 관념적 근대는 그러한 완고한 삶의 형태에 변화를 주기 어려웠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근대적인 가족의 굴레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신소설이 가장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게 재현해 낸 것이 바로 고답적인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이러한 가족이다. 그렇게 신소설은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대사회적인 관심의 확산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가족 단위의 제문제에 밀착<sup>38)</sup>되어 있다.

구습에 의한 가족 파탄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준 소설이 <귀의성>이다. 이 작품은 가족의 문제를 접근하는 신소설 중 예외적인 작품에 속한다. <귀의성>은 구습에 의해 지탱되는 가족 구조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의 일단을 드러낸 점에서는 다른 가정소설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본처는 악인이고 첩은 선인으로 설정된다. 본처는 자신이 새로운 가족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법함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기보다는 첩이란 경쟁의 대상을 폭력적으로 제거하고자 간계를 꾸민다. 여기에 추문으로 위장하여 모함하는 도덕적 단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사의 후반부는 첩의 부모에 의한 복수극이 펼쳐지며 이야기는 매듭지어진다. 탐욕에 사로잡힌 음모를 응징하는 방법은 비합법적이고 원한에 차있다. 근대적 이성에 의한 사건의 통찰이나 처리는 이러한 격정적 서사에 관여되어 있지 못하다.

폭력적 응징으로 서사가 종결되는 <봉선화>를 또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가족을 서사화한 대부분의 신소설은 악인들을 개조하여 가족 화합으로 가는 해피엔딩의 틀을 유지한다.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각성하는 교훈을 소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며 독자의 공명<sup>39)</sup>을 기대한 신소설은 따뜻한

38) 이재선, 「'귀의 성'과 가족의 문제」, 『신소설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9쪽.

39)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33쪽.



화해로 귀결되는 전통적 서사 도식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인다. 주인공의 가계(家系)에 관한 서술로 시작하여 가문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고 가족의 만남과 그 가문의 번영으로 결말<sup>40)</sup>짓는 고소설의 서사들은 가족서사에 기울어진 대부분 신소설에도 적용된다. 가족으로의 회귀와 가족의 결합으로 종료되는 서사 패턴에는 과거의 가족주의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다. 가족이라는 절대원리는 신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도덕적 내면을 형성하는 가장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면서 근대적 의식으로 전이되는 소위 개화를 지체시킨다.

이미 <혈의 누>에서 이러한 개화 지체는 단초를 내보였다. 신학문 배양과 그에 의한 민족 계몽이란 기치에도 불구하고, <혈의 누>의 서사적 이면에는 가족의 이합에 따른 정념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요소로 자리잡는다. 이 정념은 가족주의에서 발원한 것으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떠도는 옥련의 비현실적 유학을 감싸는 실질적인 의미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곧 유학은 옥련의 가족 일탈을 설정한 서사적 수단이 되고, 가족 지향의 정념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하는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혈의 누>가 그러한 구도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재결합으로 종결된다면, 그 후속편인 <모란봉>은 옥련이 구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으로 소속되기 위한 신고(辛苦)의 과정으로 짜여진다. 단단히 결박된 구습의 미몽을 벗어버리고 개화된 세상을 구축하고자 옥련은 그가 소속된 고루한 가족에서 분리되어 신학문을 익혔으나 그녀의 미래는 새롭게 익힌 학문에 의해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가족으로 회귀하고 재래의 결혼 풍속에 얽매임으로써 고답적인 윤리형 패턴의 주인공으로 복귀한다.

신소설에 드러난 이합적 가족서사에는 사회적 집단으로서 가족의 절대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맹목에 가까운 의지가 담긴다. 가족의 담장을 벗어나 발산될 수 없는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는 가족 내로 집약되면서 왜곡된다. 가족 밖의 세계에서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폐쇄적으로 가족 내의 관계에 집착한다. 이때 가족은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존재하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재생산<sup>41)</sup>되는 사회적 혹은 생물학적 생성의 적극적 기능을 상실하고 인습으로 복귀하는 절대적 음모와 폭력이 은밀히 자행되는 소모적 집단으로 전락

40) 최시한, 앞의 책, 18쪽.

41) 앙드레 뷔르기에르, 『가족의 역사』(정철웅 역), 이학사, 2001, 97쪽.

한다. 이렇게 고립되고 정체된 가족은 신소설에서 가족 서사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이미 살펴본 <귀의성>이 그러하며, <빈상설>이나 <목단화>, 그리고 <치악산> 하편(김교제)이 이러한 가정 내의 비화를 잘 드러낸다.

<빈상설>의 이씨부인은 남편의 난봉과 첩에 의해 집밖으로 추출되며, 「목단화」의 이정숙은 완고한 시부와 친정의 계모에 의해 시택과 친정 양가 모두에서 추방된다. 그리고 <치악산>의 이씨부인은 계비인 시모에 의해 집 밖으로 유인된다. 추방당한 여자는 곧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다. 정절을 강제하던 집 밖에 거처함에도 여전히 그것은 여자의 의무로 처신을 제약한다. 방출된 여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에 복귀하는 것이다. 집 밖의 여자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 길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절의 몸을 지켜야 하니 그녀는 필히 그녀를 거부했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sup>42)</sup>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쫓겨난 그녀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가족 복귀는 가족 간의 화해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해피엔딩은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는 일정한 서사적 틀을 형성한다. 이러한 서사의 틀에 유교적 가족 의식이 담긴다.

김씨 부인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기 시작을 하더니, 본성인즉 총혜하던 고로, 구습을 폐히 고쳐서 자선한 부인이 되어 그 아들과 며느리의 영효를 받고 사는데, 홍군수 부부는 자식된 도리를 극진히 하고, 김씨 부인도 부모된 대의를 보존하여 자애지정이 똑똑 들더라.<sup>43)</sup>

전례적인 유교 윤리와 조화<sup>44)</sup>를 이루면서 유교적 가족주의로 귀결되는 「치악산」의 서사 구조는 윤리적 개화를 지향한 신소설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투화된 서사는 유교적 이념과 규범을 내재하는 고소설의 그것을 재

42) <목단화>의 한 예를 보면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숙의 부친인 이참판은 완고한 반개화를 비난하는 개화인임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제일 정절(貞節)한 지조와 온순한 예절”(5쪽)을 가르치며 “다른 남자와 친압하면 예절이 궤손(壞損)”됨을 이른다. 시택에서 소박 맞는 딸에게 “설마하니 너를 개가 시켜 보낼 리가 있느냐”(6쪽)며 부녀가 모두 수구적인 여성관을 피력한다(김교제의 <목단화>, 서울대출판부, 2003).

43) 김교제, <치악산>(하), 서울대출판부, 2003, 187쪽.

44) 조동일, 앞의 책, 105쪽.

생산하면서 가족의 구성과 가치 지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표명한다.

전통 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신소설의 가족서사는 이혼 남녀의 결합을 이야기의 주요한 화소로 삼은 작품들에서 더욱 주도적으로 재연된다. 이렇게 도식화된 서사적 기능들은 윤리적 함의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sup>45)</sup>을 드러내며 역사적으로 침전된 서사의 연원을 일깨워준다. 또한 여기에 끊임없이 삽입되는 개화의 동인은 이러한 서사적 도식성의 일탈을 가능하게 하리란 예측을 불러오기도 한다. 근대소설은 이 서사 양식의 동일성이 소멸하는 신소설의 변형에서 비로소 구현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소설은 고소설과 근대소설의 과도기를 점유하며 내적 형식에 있어서의 혼란을 노정한다. 신소설이 고소설과 깊숙이 연대되어 있는 측면은 윤리적 처세와 관련된 가족서사이다. 특히 온갖 장애를 끌어안고 결혼에 이르는 혼인담을 서사화한 신소설은 서사의 역사적 승계와 윤리의 고답적 세습을 잘 대변한다.

옥련의 혼사 장애를 다룬 <모란봉>에 잘 나타나듯 결혼에 이르는 과정의 고난은 주로 여성에게 주어진다. 기존의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으로 입문하는 데는 이렇듯 일련의 시련이 주어진다. 이러한 입문의 과정은 신소설에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는 담화 방식이다.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가출하여 실절(失節)의 위기를 모면하고 정혼자(定婚者) 구참경과 결합하는 <화세계>의 김수정, 연적의 모함으로 고난에 처했다가 결국은 김상현과 결혼에 이르는 「안의 성」의 박정애, 난세에 행방이 묘연한 정혼자 김영창과의 의리를 지키고 혼인에 이르는 <추월색>의 이정임, 부모를 여의고 파혼의 위기에 몰렸으나 이를 넘기고 이정진과 혼례를 치르는 <금강문>의 김경원 등,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은 새로운 가족 질서에 편입되는데 따른 수난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 수난은 그들이 소속되고자 하는 가족 내의 배타적 거부에 의해서 다가오기보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다. 곧 그들은 정혼한 남자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고난의 모험을 감당하며, 이러한 수난의 자발적 선택이 그들의 정절을 고귀한 것으로 격상시킨다. 그들에게 배우자 선택의 자유는 없으며 배우자를 향해 헌신하고 수절해야 할 의무만 주어진다.

45)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trans. Kathleen Blamey),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2, p.164.

부모가 나는 이왕 영창에게 허락하셨으니, 나는 죽어 백골이 되어도 영창의 아내이라. 비록 영창이는 불행하였을지라도 나는 결코 두 사람의 처는 되지 아니할 터시오 ... 아버지께서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글을 가르쳐 주셨지요. 나를 이왕 영창이와 결혼하시고, 지금 또 시집 보낸다 하시니 부모가 한 자식을 두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영창이 종적은 알지 못하나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는 죽어도 아니 하겠습니까.<sup>46)</sup>

그들의 결혼은 대부분 그들의 계층적 소속과 지역적 주거에 따라 결정되고, 그들은 이러한 결혼의 전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독립적 자아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가족에 귀속되어 있으며, 결혼은 그러한 귀속 상태를 옮겨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추월색>의 결말 국면은 여자에게 부여된 이러한 결혼의 규율을 그대로 수렴한다. 이러한 서사적 틀에 기능적으로 놓인 신소설의 여자 주인공은 인간 생명을 생산하여 가정을 지속시킬 천지의 큰 의리<sup>47)</sup>를 실천할 유교적 의무를 떠맡는다. 여성에게 가족은 이러한 유교적 조건을 충족시킬 하나의 기능으로 존재하며, 그러한 절대화된 역할이 신소설에 투영되어 전형적인 인물형을 창조한다. 신소설의 유형성은 이렇게 도덕적 신념의 경직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것의 중심에 가족 이념이 자리한다. 가족으로 회귀하고, 가족으로 결합되고, 가족으로 치유되는 작중인물들의 의식에는 유구하게 지속되온 유교적 가족이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그렇게 지향된 가족에 대한 유교적 공명은 신소설의 서사공간을 지배하면서 가족 결합이란 고유한 서사틀을 형성한다.

## V. 맺음말

소설의 서사구조가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논의는 전개된다. 그것은 리얼리스트들이 반영 대상으로 삼는 객관적 현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설은 객관 현실 이면에 흐르는 사람들의 이상이

46) 최찬식, 앞의 작품, 166-167쪽.

47) 황의동, 『유교와 현대의 대화』, 예문서원, 2002, 148쪽.

나 환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중세의 서사 형식은 더욱 현실에서 발원하는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의 중심 무대로 삼는다. 소설의 서사공간이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그 가공된 세계가 현실의 욕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얻는다. 신소설은 현실의 구체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그런 까닭에 서사의 의미 또한 추상적으로 비추워진다. 이러한 관념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집단적 욕망을 주목해야 한다. 곧 개화기 사람들이 여전히 이야기의 내면적 형식들을 통해서 무엇을 소통하고자 기대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소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이러한 질문은 때로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가공된 서사 구조나 삽화들을 인식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의무의 인간은 이러한 맥락에서 신소설의 주요한 작중인물 유형으로 분석된다. 여자 주인공들에게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의무로 정절이 강요된다. 신소설의 인물군을 선악으로 양분할 때 여성의 순결은 선인에 들어가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이 된다. 유교적 몸을 보존하는 것은 여자의 최초의 미덕에 속하며, 이러한 여자의 의무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과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전대의 지고한 가치 지평에 해당하던 삼강의 윤리는 신소설의 작중인물들에게도 여전히 인륜의 준칙으로 강제된다. 그들의 도덕감정은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배면으로 하여 생성되며, 그러한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이끌어어나가고자 개인을 버리고 고초를 감내하는 데서 서사적 공감은 생성된다. 의무적 인간의 처신과 관련하여, 그들의 행위와 윤리 의식의 중심에 가족이 있다. 유교적 가족 정서에 의해 형성된 그들의 가족주의는 가정을 매개로 하여 펼쳐지는 작중인물의 이합 과정에 잘 드러난다. 가족을 생명 존재의 절대적 단위로 하여 완고하게 내면화된 유교 윤리는 신소설의 가족서사를 도식화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효열(孝烈)의 윤리적 경계가 가족 범주에서 설정되듯, 가족내 구성원으로 결박된 작중인물들은 가족을 벗어난 사회적 집단에서 다른 어떤 삶의 동질성이나 의의를 찾지 못한다. 그렇게 가족 내에서 실존의 근거를 모색하는 작중인물들은 가족서사에 기능적으로 유형화되며 고소설을 계승하는 고정된 서사들을 구성한다.

윤리적 개화와 관련하여 신소설은 고소설을 답습한다. 신소설의 서사적 도식성은 많은 부분 윤리적 가치 준거와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서사패턴이

개화기의 윤리적 공감 위에 구축되었음을 재현의 층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감이란 상상력을 통하여 타인의 감정과 공유하는 것으로 윤리적 처신에 있어 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소설이 하나의 양식으로 접근되기 위해서는 서사의 윤리적 관여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신소설의 양식적 독자성을 규정하는 일환이기보다 고소설의 답습이라거나 근대소설로서의 관념적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에 머물러 버린다는 데 있다. 전광용에 의해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학계는 기본적으로 신소설을 하나의 장르로 인정해왔다. 신소설의 구조적 상투성과 내용의 관념에 대한 지적은 하나의 참조이지 그 자체가 양식적 특성이 될 수 없다. 신소설의 양식적 특성을 규명하는 일은 결국 작품들에 대한 면밀한 읽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윤리적 개화의 척도에서 가족서사의 도식성을 해명하려는 여기서의 관점은 그러한 고찰의 일환이 될 것이다.

주제어: 서사적 도식성, 유교적 인간, 도덕적 계몽, 가족서사, 도덕감정

## 참고문헌

- 김연숙,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劉偉林, 『중국문예심리학사』(심규호 역), 동문선, 1999.  
이재선, 「'귀의 성'과 가족의 문제」, 『신소설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1-9쪽.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錢 穆, 『주자학의 세계』(이완재·박도근 역), 이문, 1997.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83.  
蔡方鹿, 『유교-전통과 현대화』(김봉건 역), 서광사, 1999.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민음사, 1993.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황의동, 『유교와 현대의 대화』, 예문서원, 2002.  
황정현, 『신소설 연구』, 집문당, 1997.

- 니체, 『선악을 넘어서』(김훈 역), 청하, 1982.
- 라파엘, 『현대도덕철학』(김영철·김우영 역), 서광사, 1987.
- 루 샤오핑,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 사라 밀즈, 『담론』(김부용 역), 인간사랑, 2001.
- 앙드레 뷔르기에르 외, 『가족의 역사』(정철웅 역), 이학사, 2001. 21-100쪽.
-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박종만 역), 까치, 1983. 13-68쪽.
- 장 프랑소와 료타르, 『칸트의 숭고미에 대하여』(김광명 역), 현대미학사, 2000.
- 폴 리콤폴르, 『시간과 이야기』2(김한식·이경래 역), 문학과지성사, 2000.
- 콜린 데이비스, 『타자를 향한 욕망』(김성호 역), 다산글방, 2001.
- 줄리아 칭, 『유교와 기독교』(임찬순·최효선 역), 서광사, 1993.
-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trans. Kathleen Blamey),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2.

<Abstract>

## Narrative Ethics in Shinsoseol

Song, Ki-Seob

The main theme of Shinsoseol, the new-style fiction, is moral law. In this fiction, morals still remain as custom and a factor of moral enlightenment. This fiction vividly describes moral human beings and conditions of their times. The lives of moral human being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raditional convention. Moral consciousness obtained from this convention is reflected in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fiction it causes.

Characters described in Shinsoseol can be called Confucian men. They are the most important characters in the fiction. Women's virtue is represented most prominently in the fiction. The Shinsoseol shows women's virtue remarkably. This belongs to Confucian filial duty and chastity and leads the content and plot of the story. The narrative structure of Shinsoseol has unique pattern showing women's behavior in relation to morals.

Moral obligation conceives the man of duty. Shinsoseol takes its moral obligation from aristocratic heroic fiction. Family is related to the story pattern of the fiction. Shinsoseol accepts the ideal conclusion of reconciliation discovered in Gososeol, the old-style fiction. To fulfill this conclusion, family is highly relevant. Characters return to their families where their problems are cured. There has been Confucianism in their consciousness for a long time. Union of family is another primary theme of the new-style narrative structure.

In relation to moral enlightenment, Shinsoseol follows Gososeol. The narrative schema of Shinsoseol is combined with moral values. This narrative pattern is formed on moral sympathy of the enlightenment period.



Sympathy is employed to understand others' emotion with imagination, and it is a very important feature. Shinsoseol has to consider the morals of narrative deeply. A characteristic of the new-style fiction can be found by reading a lot of fiction carefully. This study is about finding a schema of family narrative.

Key Words: narrative schema, moral enlightenment, Confucian men, family narrative, moral sympathy